

노사정-지역사회

일자리 늘렸다

광주의 미래 자동차산업밸리



(37)

제11부-광주형 일자리 모델

〈상〉독일 폭스바겐 Auto 5000프로젝트

‘광주 친환경 자동차 부품 클러스터 조성사업’(자동차 100만대 생산기지 조성사업) 성공을 위한 주요 과제는 ‘광주형 일자리’다. 특정 기업의 평균보다 낮은 임금의 일자리를 만들어 구직자들에게 제공해 실업난을 해소하고 인건비를 줄여 대기업 투자를 유인해 양질의 일자리를 더 늘리는 선순환 고용구조를 만든다는 것이다.

광주시가 ‘광주형 일자리 모델’에 주목한 배경에는 국내 제조업 공동화와 일자리 부족에 따른 ‘취업 절벽’ 속에 노사정 합의를 통해 새로운 임금 구조의 고용 모델을 만들어 보자는 데서 시작됐다. 하지만, 일부 노동계에서는 좋은 일자리 감소와 나쁜 일자리 확대의 부정적 견해를 보이고 있고, 무엇보다 사회적 합의를 위한 전제 조건인 노조의 사회적 권리 보장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독일 폭스바겐의 ‘Auto 5000프로젝트’의 출발 배경과 의미, 성과, 문제점 등을 독일 현지 취재를 통해 살펴본다.

폭스바겐 잦은 노사분쟁…공장 해외이전 추진

독일 통일 후 실업률 급증에 ‘낮은 임금’ 이슈화

Auto 5000프로젝트 ‘광주형 일자리’ 모델로

글·사진=독일 최권일 기자

◇‘Auto 5000프로젝트’ 시작 배경=‘광주형 일자리’는 독일 볼프스부르크의 폭스바겐 노사합의 모델인 ‘Auto 5000프로젝트’가 선행했다.

지난 2001년 폭스바겐이 금속노조와 월수입 5000 마르크(한화 약 360만원)의 임금으로 5000명을 고용하는 이른바 ‘Auto 5000프로젝트’가 성사됐다. 막바지 협상 타결을 위해 당시 슈뢰더 총리가 직접 나서서 등 독일

내에서 관심을 끌었던 프로젝트였다.

이 프로젝트를 연구한 독일의 괴팅겐 대학 사회학연구소 연구책임자인 미하엘 쿨만(Michael Kulman) 박사에 따르면 ‘Auto 5000프로젝트’의 출발점은 당시 독일 사회의 정치적·경제적 상황에서 비롯됐다.

1990년 통일 이후 독일 경제상황이 최악에 이르렀다. 통일된 독일에 돈을 쏟아부으면서 시장성은 악화됐고, 실업률은 크게 높아졌다. 이 때문에 기업들을 중심으로 임금이 낮아져야 한다는 이슈가 만들어졌다.

폭스바겐도 이 당시 노사분쟁이 잦았고, 노조가 현 임금을 고수함에 따라 사측은 인건비가 낮은 해외공장 진출 문제를 심각히 고민했다. 당시 볼프스부르크는 폭스바겐 공장 때문에 실업률이 그리 높지는 않았지만, 폭스바겐이 해외 공장 설립을 추진할 경우 독일 전체의 실업률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가 각계각층에서 제기됐다.

볼프스부르크시와 니더작센주 정부와 독일 연방정부까지 이 문제를 심각히 여기고, 고용과 임금·노동시간 문제 등에 대한 문제점을 찾기 시작했다.

◇노사 갈등 속 성공적 평가=폭스바겐과

볼프스부르크시는 5000마르크 보다 낮은 임금을 주장했고, 노조는 더 낮아서는 안된다고 맞섰다. 이처럼 노사 간 대립이 지속되면서 노사 양측과 주 정부 등도 중간 지대를 찾아야 했고,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는 방법 등이 논의되기 시작했다. 이런 가운데 폭스바겐에서 1999년 11월 이 프로젝트를 처음 발표하면서 큰 사회적 반향을 불러 일으켰다.

이후 금속노조와의 협상이 진행됐고, 협상 과정에서 노동시간을 두고 노사 간 많은 갈등을 겪었다. 정규 노동시간은 사측에서는 생산계획 달성 여부, 노조 측에서는 노동시간의 유연성 문제 등이 민감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수차례 노사협상은 결렬이 되거나 노조가 반발하기도 하는 과정을 거쳤다. 이 과정에 이 프로젝트를 성사시키기 위해 지역사회와 독일 정부가 안간힘을 썼다. 협상이 결렬될 경우 수많은 지식인과 정치인들이 협상 재제를 위한 노력을 했고, 슈뢰더 총리까지 조정해 나서기도 했다.

이는 당시 독일 경제상황에서 ‘Auto 5000프로젝트’가 가진 사회적 의미가 컸기 때문이다. 결국 22개월여만에 노사가 극적인 합의를 이끌어 내며 노사정 및 시민 간 ‘사회적 대화’의 결실을 맺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cki@kwangju.co.kr



“Auto 5000프로젝트’는 작업장 혁신 프로젝트

품질 개선은 긍정적…노-노 갈등 부작용 아쉬워”

독일 괴팅겐 대학 사회학연구소 미하일 쿨만 박사

“지역 내 기업의 노·사는 지역사회와共生 관계다. 독일 문화는 가능했지만 한국 문화는 가능할지 의문이다”

독일 폭스바겐의 ‘Auto 5000프로젝트’의 배경과 내용 등을 연구·평가한 독일 괴팅겐 대학 사회학연구소 미하일 쿨만(Michael Kuhlmann) 박사는 광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광주형 일자리’ 성공 여부를 묻는 질문에

이같이 밝혔다.

쿨만 박사는 “‘Auto 5000프로젝트’의 경우 당시의 독일 경제상황과 정치적 상황이 맞아 떨어지면서 가능했고,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개입과 노사가 서로 신뢰를 갖고 협의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지역 기업은 지역사회와 함께 성과를 공유하는 공생관계라는

점에서 노사 합의 등을 포함한 사회적 합의가 지역사회 신뢰를 바탕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쿨만 박사는 이어 “‘Auto 5000프로젝트’의 경우 임금과 노동 시간에 초점을 맞추고 보는 경향이 있지만, 사실 이 프로젝트는 작업장 혁신 프로젝트가 주요 내용이었다”면서 “100가지 이상의 혁신적·기술적 프로젝트가 진행되면서 품질 개선이 상당히 이뤄진 점을 높이 평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 프로젝트가 생산성 향상을 비롯해

실업교육을 통한 취업을 상승 등의 긍정적 내용도 있었던 반면 부작용도 뒤따랐다고 설명했다.

그는 “프로젝트 시작 당시에는 노동시장의 위기 등 경제적 상황이 심각했던 만큼 노사가 이를 받아들였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임금이 상대적으로 높았던 폭스바겐 기존 노조와 Auto 5000프로젝트의 노조 간 갈등도 상당했다”고 말했다.

쿨만 박사는 “이 프로젝트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잘 됐다고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지만, 전문가들의 평가는 모두 견해가 다르다”면서 “지난 2008년 Auto 5000이 사라지고 폭스바겐으로 합병되면서 작업장의 많은 혁신적 프로젝트가 사라진 것이 아쉽다”고 밝혔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씨시봉

(6인조 밴드)

운형주 & 김세환

2016 송년디너쇼

2016. 12. 7 (수) 18시 30분 신양파크호텔 1층 그랜드볼룸

165,000 원

입장 18:30 / 식사 19:00 / 공연 20:00 / 퇴장 21:30
15세 미만은 입장이 불가능합니다
Shin Yang Park Hotel
MEMBERSHIP HOTEL & FITNESS CLUB

 (주) 대양인투스 신양파크호텔
Tel. 062-228-4711~2

C'est Si Bon
2016 Dinner Show
